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 두 영**

Effects of Appearan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on Happiness*

Kim, Dooyoung**

요약

[목적] 이 연구는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를 위해 25세 이상의 시각장애성인 여성 394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 첫째, 외모 인식의 하위 유형인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3.210, 외모 관심도의 평균은 3.211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생애주기, 최종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상태에 따라 외모 중요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경제 활동, 결혼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외모 관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외모 만족도의 하위 유형인 얼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127,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630으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얼굴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주기, 최종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얼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최종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가 보통 혹은 높은 여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외모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모 인식의 하위 요인인 외모 중요도가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 인식의 하위 요인인 외모 관심도와 외모 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얼굴 만족도가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였다.

주제어 : 시각장애여성, 외모 인식, 외모 만족도, 행복감

ABSTRACT

[Purpose]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appearan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on happiness. **[Method]** This study analyzed survey data obtained from 394 participants who are over 25-year-old and major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Result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the perception on the appearance significance as a subfactor of appearance perception was 3.210 in average and the average of appearance interests was 3.211, all of which showed higher levels.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ed in appearance significance depending on lifecycle, final academic background, residential region and marriage status.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depending on economic activity, marriage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Second, facial satisfaction as a subfactor of appearance satisfaction was identified as 3.127 in average and the mean satisfaction on body was 2.630. This indicated that body satisfaction felt by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was considerably lower than facial satisfacti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cial appearance were observed depending on lifecycle, final academic background, residential region, marriage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Considerable differences in body satisfaction were seen depending on final academic background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Moreover, women with less appearance significance and appearance interes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ith normal or higher appearance significance and appearance interests. Third, the effects of their appearance perception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happiness indicated that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as a subfactor of appearance perception gave negative impacts on happiness. In contrast, the level of interest in appearance as a subfactor of appearance perception and facial satisfaction as a subfactor of appearance satisfaction gave positive impacts on happiness.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a couple of effective methods for improving happiness of visually impaired women.

Key Words : visually impaired woman, appearance perception, appearance satisfaction, happiness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7163).
** 제 1저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Dept. of Dan-kook University

서론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와 지위 상승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면서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신체 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부 관리, 화장, 성형수술, 체중관리 등 다양한 외모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더욱 더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외모란 외면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이 합해진 전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시각적으로 보이는 신체의 생김새부터 얼굴, 화장, 헤어스타일, 몸매, 의복 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만의 이미지 연출에서 보이는 태도나 행동을 통해 성격, 호감도, 느낌, 취향, 생각, 지위 직업 등을 파악할 수 있다[2]. 또한 외모는 자기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신의 성, 연령과 관련된 사회적 역할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정체감 형성에 기여한다[3]. 예전의 외모는 주로 얼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신체 전체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4],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성인에게 있어 외모는 이성교제, 결혼 등 사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승진, 사업, 마케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 투자를 하게 된다[5].

외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지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람은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형성한다는 사회적 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외모에 대한 인식은 물론, 외모 만족도와도 직결된다[6]. 사람들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타인과 비교함으로써[7, 8] 이상적 신체 이미지와 자신의 신체 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인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 이 때 이상적 신체 이미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 또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9].

이상적 외모와 실제 자신의 외모 사이에서 불일치를 지각할 때 개인은 자기 신체에 덜 만족하게 된다[10].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면 더욱 자신을 평가 절하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어 대인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중요한 억압요인으로 작용한다[11]. 반면, 외모에 만족하는 여성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며, 외모가 사회적 역할 수행과 개개인의 정체성 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체 이미지를 더 많이 인식한다[12]. 그 동안 진행된 많은 연구들[13, 14, 15, 16]은 외모에 대한 관심도나 외모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Kim(1984)의 연구를 시초로 현재까지 2천여 편 이상 진행되어 왔다[17].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에 이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8, 19, 20, 21]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 23, 24, 25], 그리고

직장인이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6, 27, 28, 29, 30]를 다수 확인할 수 있으나 유독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모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시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론적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25세 이상의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장애 정도나 기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시각장애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외모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할 것이며, 시각장애여성들의 외모 중요도와 관심도, 외모 만족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여성을 위한 뷰티와 패션 시장의 마케팅 전략수립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분석하고,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25세 이상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시각장애 특수학교, 시각장애여성연합회, 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각장애성인 여성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5세 이상의 시각장애성인 여성 41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 누락된 경우, 응답이 지나치게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 18부를 제외한 394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최종학력, 경제활동 상태, 가족의 전체 수입, 거주 지역, 결혼 상태, 실명시기 및 손상 정도, 주관적 건강 상태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성인

전기, 중년기, 노년기의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성인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이 연구에서는 Levinson(1978)의 ‘생애주기이론’[31]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 그 대상을 25세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5~39세를 성인 전기로, 40~59세를 중년기로, 60세 이상을 노년기로 구분하였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족의 전체 수입은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거주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 미혼, 기타로 구분하였고, 실명 시기 및 손상 정도는 Lowenfeld(1981)의 주장에 따라 선천적 맹, 후천적 맹, 선천적 저시력, 후천적 저시력으로 구분하였으며[32], 이 때 선천적이라 함은 선천적이거나 5세 이전에 시각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후천적이라 함은 5세 이후에 시각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나쁨, 보통, 좋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rea	Division	N	%	Area	Division	N	%
life cycle	early period in adulthood	109	27.7	marital status	single	130	33.0
	middle period in adulthood	190	48.2		married	238	60.4
	late period in adulthood	95	24.1		other	26	6.6
final education	highschool and under	231	58.6	blind date and damage	congenital blind	118	29.9
	college and upper	163	41.4		adventitious blind	21	5.3
economic activity	employment	175	44.4		congenital low vision	185	47.0
	unemployment	46	11.7		adventitious low vision	70	17.8
	non-economic activity	173	43.9	health status	non-healthy	76	19.3
family all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156	39.6		average	132	33.5
	2~4 million won	150	38.1		healthy	186	47.2
	more than 4 million won	88	22.3	total	394	100.0	
residence area	metropolitan area	235	59.6				
	non-metropolitan area	159	40.4				

조사 도구

외모 인식

외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수치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지되는 경향이 많다 [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모 인식을 일상생활에서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피부 관리, 메이크업, 헤어, 네일, 몸매관리, 패션 등 신체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그 하위 구성요인을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로 설정하였다. 외모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ee(1996)가 제작하고[33], Han(2006)이

사용한 도구[34]를, 외모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ang(1993)이 제작하고[35], Han(2006)이 사용한 척도를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은 외모에 대한 중요도 9문항(외모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등), 외모에 대한 관심도 9문항(외모를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 등)으로 총 18문항이고, 외모의 중요도 및 관심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역점 문항 1개는 역산 처리하였다. Cronbachs α 는 전체 .879, 하위 영역별로는 외모 중요도 .843, 외모 관심도 .829로 높게 나타났다.

외모 만족도

외모 만족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외모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정도를 의미한다[17].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모 만족도를 외모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그 하위 구성요인을 얼굴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외모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endelson & White(1993)의 신체 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36]를 Lee(2005)가 번안한 것[37]을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은 얼굴에 대한 만족도 8문항(나는 내 얼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등), 신체에 대한 만족도 5문항(나는 나의 몸매가 자랑스럽다 등)으로 총 13문항이고, 얼굴 및 신체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역점 문항 4개는 역산 처리하였다. Cronbachs α 는 전체 .803, 하위 영역별로는 얼굴 만족도 .710, 신체 만족도 .794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이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포함한 일상에서의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세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각 나라별로 1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조사할 당시 사용한 세계 행복감지수(positive experience index) 5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갤럽이 일상적인 행복감 측정을 위한 질문으로 제시한 것은 조사 전날의 감정 상태를 묻는 5문항으로, 많이 웃었는지, 피로가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지, 온종일 존중받으며 지냈는지, 뭔가 재미있는 것을 익히거나 했는지, 또 하루가 즐거웠는지를 묻는 질문들이다. 설문 문항은 일상에서의 만족감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역점 문항은 없다. Cronbachs α 는 .800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절차

이 연구는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하기 위하여 학위논문[17, 34, 37, 38, 39, 40, 41, 42, 43]과 학술논문[20, 21, 27, 28, 44] 등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특성과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 개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1차로 시각장애인 교육 전문가 1인, 시각장애 복지 전문가 1인, 의상심리 전문가 1인 등 3명에게 문항의 적절성 여부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차로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전문가인 5명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문항의 가독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를 적극 수렴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시각장애인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원이 시각장애인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조사지를 읽어주면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시각장애 특수학교는 각 학교의 전공과 교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고, 안마사협회는 중앙회에서 각 지회로 협조 공문을 보내 조사 협조를 구했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은 9월 6일과 7일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 시각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연수에 참가한 관리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5세 이상의 시각장애성인 여성 412명이 조사에 응답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394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회수된 설문 결과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외모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 및 외모 관심도

외모 인식은 신체와 외모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신체와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느냐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모 인식을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ppearance significance & interests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Area	Division	M	SD
appearance perception	appearance significance	3.210	.6383
	appearance interests	3.211	.6478
total		3.211	.5596

분석 결과,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M(SD) = 3.210(.6383)$ 으로 나타났고, 외모 관심도는 평균 $M(SD) = 3.211(.6478)$ 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인식의 차이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인식의 차이를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생애주기, 최종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상태에 따라 외모 중요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경제 활동, 결혼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외모 관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첫째, 생애주기에 따라 외모 중요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인 전기 및 중년기 시각장애여성의 외모 중요도가 노년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년기 시각장애 여성의 경우 외모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는 반면, 외모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성인 전기 및 중년기 시각장애여성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최종 학력에 따라 외모 중요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고졸 이하의 학력자에 비해 외모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외모 관심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업자 집단이 주부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 집단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거주 지역에 따라 외모 중요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여성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여성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appearance percep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division	appearance significance		appearance interests		total		
	M	SD	M	SD	M	SD	
life cycle	a. early period in adulthood	3.32	.597	3.31	.616	3.32	.535
	b. middle period in adulthood	3.25	.618	3.18	.657	3.21	.554
	c. late period in adulthood	3.01	.687	3.17	.659	3.09	.579
	F-value	6.591**		1.885		4.231*	
	scheffe	a, b > c			a, b > c		
final education	highschool and under	3.15	.665	3.19	.664	3.17	.596
	college and upper	3.30	.589	3.25	.624	3.28	.498
	t-value	-2.433*		-.922		-1.919	
economic activity	a. employment	3.24	.579	3.28	.623	3.26	.523
	b. unemployment	3.35	.765	3.33	.718	3.34	.655
	c. non-economic activity	3.15	.655	3.11	.641	3.13	.556
	F-value	2.210		4.252*		4.014*	
	scheffe			b > c		b > c	
family all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3.25	.644	3.12	.652	3.19	.558
	2-4 million won	3.12	.654	3.24	.634	3.18	.563
	more than 4 million won	3.30	.587	3.31	.650	3.31	.553
	F-value	2.648		2.756		1.642	
residence area	metropolitan area	3.29	.590	3.26	.641	3.28	.528
	non-metropolitan area	3.09	.687	3.14	.655	3.12	.593
	t-value	3.195**		1.692		2.802**	
marital status	single	3.38	.603	3.32	.722	3.35	.581
	married	3.16	.594	3.16	.603	3.16	.518
	other	2.78	.899	3.10	.119	2.94	.655
	F-value	12.017***		3.052*		8.485***	
	scheffe	a > c		a > c		a > c	
blind date and damage	congenital blind	3.22	.584	3.20	.698	3.21	.548
	adventitious blind	3.25	.644	3.29	.722	3.27	.626
	congenital low vision	3.20	.629	3.17	.601	3.18	.533
	adventitious low vision	3.20	.752	3.33	.655	3.27	.630
	F-value	.054		1.149		.437	
health status	non-healthy	3.21	.694	3.08	.649	3.14	.582
	average	3.16	.591	3.16	.558	3.16	.454
	healthy	3.25	.648	3.30	.695	3.27	.612
	F-value	.667		3.939*		2.314	
	scheffe			c > a			
	total	3.21	.638	3.21	.648	3.21	.560

* $p < .05$ ** $p < .01$ *** $p < .001$

다섯째, 결혼 상태에 따라 외모 중요도 및 외모 관심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미혼 집단의 외모 중요도 및 외모 관심도가 기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외모 관심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명시기 및 손상 정도에 따라 외모 중요도 및 외모 관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맹인의 경우 저시력인에 비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외모에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맹인들 역시 저시력인들과 마찬가지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만족도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얼굴 만족도 및 신체 만족도

외모 만족도는 신체의 부분에 대한 만족 여부가 아닌 외모에 대한 포괄적이고 직관적인 이미지, 즉 용모와 관련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41]. 이 연구에서는 외모 만족도를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불안, 남에게 주는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얼굴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얼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M(SD) = 3.127(.5354)$ 로 나타났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M(SD) = 2.630(.6930)$ 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ial satisfaction & satisfaction on boy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area	division	M	SD
appearance satisfaction	facial satisfaction	3.127	.5354
	satisfaction on body	2.630	.6930
total		2.936	.5086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만족도의 차이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만족도의 차이를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생애주기, 최종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경제활동 상태, 가족의 전체 수입, 실명 시기 및 손상 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differences in appearance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division		facial satisfaction		satisfaction on body		total	
		M	SD	M	SD	M	SD
life cycle	a. early period in adulthood	3.00	.566	2.57	.726	2.84	.553
	b. middle period in adulthood	3.14	.479	2.61	.677	2.94	.468
	c. late period in adulthood	3.24	.581	2.75	.678	3.05	.516
	F-value	5.138**		.912		1.153*	
	scheffe	c > a				c > a	
final education	highschool and under	3.18	.532	2.71	.686	3.00	.507
	college and upper	3.05	.533	2.52	.689	2.85	.499
	t-value	2.278*		2.721**		2.910**	
economic activity	a. employment	3.12	.482	2.68	.678	2.95	.477
	b. unemployment	3.02	.556	2.59	.841	2.86	.578
	c. non-economic activity	3.13	.535	2.59	.666	2.95	.521
	F-value	1.346		.677		.640	
family all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3.12	.591	2.64	.712	2.94	.562
	2-4 million won	3.10	.544	2.62	.674	2.91	.489
	more than 4 million won	3.18	.401	2.64	.698	2.98	.441
	F-value	.714		.034		.402	
residence area	metropolitan area	3.07	.496	2.59	.674	2.89	.475
	non-metropolitan area	3.21	.581	2.69	.719	3.01	.548
	t-value	-2.465*		-1.400		-2.333*	
marital status	single	3.02	.572	2.65	.751	2.88	.559
	married	3.15	.484	2.60	.667	2.94	.472
	other	3.42	.652	2.77	.627	3.18	.508
	F-value	7.767***		.758		4.014*	
	scheffe	c > a				c > a	
blind date and damage	congenital blind	3.09	.446	2.57	.654	2.89	.430
	adventitious blind	3.24	.468	2.71	1.005	3.04	.615
	congenital low vision	3.18	.545	2.68	.689	2.99	.518
	adventitious low vision	3.01	.643	2.57	.658	2.84	.558
	F-value	2.141		.874		2.003	
health status	non-healthy	2.97	.581	2.50	.687	2.79	.530
	average	3.12	.540	2.51	.647	2.88	.469
	healthy	3.20	.501	2.77	.704	3.03	.509
	F-value	5.029**		7.311**		7.582**	
	scheffe	c > a		c > a		c > a	
total		3.13	.535	2.63	.693	2.94	.509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얼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노년기 시각장애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성인 전기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최종 학력에 따라 얼굴 만족도 및 신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대졸 이상의 학력자보다 얼굴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거주 지역에 따라 얼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결혼 상태에 따라 얼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타 집단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미혼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얼굴 만족도 및 신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얼굴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에 따른 외모 만족도의 차이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 및 외모 관심도 수준에 따라 외모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Table 6> differences in appearance satisfaction by appearance perception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division (unit : persons)	facial satisfaction		satisfaction on body		total		
	M	SD	M	SD	M	SD	
appearance significance	하 (49)	3.49	.575	2.65	.631	3.17	.498
	중 (209)	3.13	.452	2.66	.624	2.95	.437
	상 (136)	2.99	.580	2.58	.808	2.83	.584
	F-value	16.811***		.522		8.130***	
appearance interests	하 (56)	3.40	.515	2.57	.760	3.08	.520
	중 (210)	3.12	.484	2.61	.615	2.92	.443
	상 (128)	3.02	.585	2.69	.779	2.89	.591
	F-value	10.283***		.876		2.729	

*** $p < .001$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 및 관심도 수준은 2.5점 미만을 인식이 낮은 집단으로, 2.5~3.5점 미만을 인식이 보통인 집단으로, 3.5점 이상을 인식이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별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에 따라 얼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

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가 보통 혹은 높은 여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가 성공이나 행복의 요소라고 믿고 이상적인 외모와 현재의 외모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집단이 오히려 얼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분석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외모 인식 및 만족도, 행복감의 각 하위 요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진단할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664~.75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317~1.507로 10 미만이며, 상태지수(CI)는 8.197~27.448로 3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 Watson 검정 결과 1.162로 1과 3 사이의 값을 나타내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

	appearance significance	appearance interests	facial satisfaction	satisfaction on body	euphoria
appearance significance	1				
appearance interests	.514***	1			
facial satisfaction	-.372***	-.238***	1		
satisfaction on body	-.053	.079	.450***	1	
euphoria	-.193***	.015	.379***	.172**	1

** $p < .01$, *** $p < .001$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모 인식의 하위 유형인 외모 중요도와 외모 관심도, 외모 만족도의 하위 유형인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effects of appearan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euphoria of visually impaired adult women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euphoria		
	<i>B(S.E)</i>	β	<i>t</i>
appearance significance	-.144	.055	-2.604*
appearance interests	.176	.053	3.322**
facial satisfaction	.441	.066	6.644***
satisfaction on body	-.018	.048	-.378
euphoria	2.125		7.136***
R^2	.170		
<i>Adj.R</i> ²	.162		
<i>F</i>	19.975***		

*** $p < .001$

분석 결과, 전체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 은 .162로 설명력은 16.2%로 나타났고, 모형의 적합도 $F = 19.975$ ($p < .000$)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외모 인식의 하위요인인 외모 중요도가 행복감에 음(-)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모 인식의 하위요인인 외모 관심도와 외모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얼굴 만족도는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에 대한 관심도와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신체 만족도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최근 우리 문화에서 이상적인 신체모습이 젊고 날씬하며 점점 서구화된 신체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에 대한 개념도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주시하고,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 인식 및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25세 이상의 시각장애성인 여성 394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제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만족도 제고와 행복감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적 개입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M(SD) = 3.210(.6383)$ 으로 나타났고, 생애주기, 최종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으며, 외모 중요도가 높은 여성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사 대상의 연령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유사한 척도로 고등학생의 외모 인식을 분석한 Lee(2009)의 연구[45]에서 외모 중요도의 평균이 2.9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건강, 기능과 관계없이 외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46], 아름다운 외모를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화 압력 기제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외모를 중시하는 신념을 주입하고, 이를 내면화하도록 조장하고 있다[47]. 이와 같이 이상적 외모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이면에는 이상화된 미적 기준에 부합할수록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을 가져온다는 외모의 사회적 유용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48]. 하지만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지나치게 높게 인식할수록 이상적 외모와 자신의 외모 사이의 격차를 크게 지각하게 되고[49], 이상적 외모와 자신의 외모간의 불일치를 지각할 때 개인은 자기 신체에 덜 만족하게 된다[10].

따라서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여성단체에서 다양한 외모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외모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의 미혼 여성으로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성인 전기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지되는 경향이 많으므로[17], 외모보다는 내면적인 가치와 건강한 신체 이미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 외모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른 기준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차이가 개성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외모를 중시하며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50].

둘째,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얼굴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상당히 낮았고, 최종 학력과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삶과 현실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수 있다[51]. 신체적 외모 즉, 신체 이미지는 타고난 외적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첫 번째 단서이며, 성격까지 추론하여 대인지각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된다. 외모의 긍정적인 변화는 타인들에게는 다른 특성까지도 좋게 지각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만족감이 높아짐으로써 행복감 증진으로 이어져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의 가능성을 높여준다[52]. 따라서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외모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모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어떻게 가꾸는지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될 수 있다. 현대에는 관리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이미지가 수정·보완되어 자신이 원하는거나 필요한 이미지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있어 경쟁력이 된다[5]. 외모에 대한 노력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지각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킬 수

있는 빠른 정보원이 되고 있다[53].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을 활용한 외모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은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생활에서의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외모 관심도와 얼굴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결혼 상태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외모 관심도와 얼굴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수준도 높아지고 외모 만족도가 낮으면 주관적 행복감 수준도 낮아진다는 Kim & Lee(2010)의 연구나 스스로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면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이 상승한다는 Kim(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TV 프로그램, 특히 대부분 미모의 연예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를 통해 비춰지는 외모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찾아보게 하며, 자신의 매력적인 모습을 찾아보고,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게 하는 외모 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행복감은 삶의 질, 만족감과 더불어 단순한 물질적 풍요에 비해 더욱 중요한 삶의 요소로서 부각되어 사회 각 분야에 주요 연구 목적으로 설정되어 가고 있으며, 단순한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가 행복 결정의 주요 요소로 밝혀지고 있다 [54]. 즉 주관적인 행복감을 위해서는 자신의 외적·내적인 만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평가되는 신체적인 매력에 대한 자신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모인식개선 프로그램, 외모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외모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공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각장애성인 여성의 외모 인식 및 만족도를 실증한 국내의 최초 시도로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을 시각장애성인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남성들의 뷰티 시장 성장을 감안해 볼 때, 연구 대상으로 시각장애성인 남성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연구 대상을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외모에 관심이 많은 다운증후군이나 청각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ference

- [1] Jo, S. (2013). The Effects of the Gap between Chronological Age and Self-Perceived Age in Adult Women on Sel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the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2] Ko, S. (2015).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Body Images on Interpersonal Relations of Adults -Mediating Effect of Hop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Hnaseo University.

- [3] Stone, G. P. (1965). *Appearance and self*. In M. E. Roach and J. B. Eichr. eds. Dress, adornment, and social order, 216-245. New York: John Wiley & Sons. Stoland, E. (1996). *The Psychology of Hop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4] Park, S., & Park, K. (2008). The Trend of Newspaper Articles for Male Appearance Management. *The Research Journal of th Costume Culture, 1*(3), 547-558.
- [5] Chang, M. (2010). Th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and Body shape management on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 [6] Yun, J. (2005). A Study on Effects of Awareness of Appearance Management on Professional Consciousness and Effective Education Methods : Focusing on Beauty Design Maj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ke-up Design, 1*(2), 153-161.
- [7] Kim, K. (2003). A Relationship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Body cathexi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 [8] Kim, S.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 Self-Asser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9]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Macmillan Pub. Co, New York: Fairchild.
- [10] Park, Y. (2013). Effects of Body Consciousness resulted from BMI Index and Somatotype Drawing on Appearance Satisfaction.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Gachon University.
- [11] Kim, H. (2010).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Bod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Self-Esteem and Stress -Focused on Chungcheong Area-.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 Cultural Studies Hannam University.
- [12] Kim, E. (2001). A Research on the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an.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13] Gong, Y. (2009). The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f as Mediator.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14] Kim, M. (2015). Effe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of women in their 20s and 30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appines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15] Kim, J., & Lee, J. (2010). The Effects of Childrens' Appearance Satisfaction upon their Subjective Well-be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ing Factor. *Journal of Korea ins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3*(3), 3-14.
- [16] Jang, H. (2014). Influences of body image and physica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psychological st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 [17] Hong, S. (2013).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interest in appearance and body satisfaction of Korean women and migrant wome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18] Kim, G., & Lee, W. (2008). Children's Appearance Interests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elf-Expression and the Interpersonal Anxiety.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2*(4), 567-584.

- [19] Song, S., & Kweon, S. (2014). Causal Relations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1), 93-115.
- [20] Lee, K., & Ahn, G. (2013). The Effect of the Interest and Satisfaction in Appeara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5(1), 73-83.
- [21] Cho, Y. (2010). Adolescents' Body Satisfaction, Internet Use, and Family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 210-231.
- [22] Kim, E. (2017).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on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d School of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 [23] Ahn, C. (2011). The Effect of Male University Students' Body Images and Self-Respect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 [24] Jeong, E. (2016). Appearance instrumentality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d School of Seowon University.
- [25] Lee, J., Oh, J., & Kim, H. (2019). The Effe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University Adaptability on the Self-Esteem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1), 362-370.
- [26] Ko, H., & Park, S. (2015). Effect of Age on the Appearance Recognition by Women and thei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 Invest Cosmetol*, 11(1), 73-80.
- [27] Kim, S., & Kim, S. (2009). A Study on the Behavior of Cosmetic Surgery of Working Women in Their 20s-30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mportance of Outward Appearance. *Journal of the Korea Soc. Beauty and Art*, 10(1), 5-15.
- [28] Rhie, S., & Park, Y. (2011). Interest in Appearance, Recognition of Skin, and Skin Care Behavior According to Women's Age. *Journal of Korea Soc. Beauty and Art*, 12(1), 101-112.
- [29] Shin, J., Song, S., & Ryoo, K. (2015). Th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9(11), 59-72.
- [30] Hong, B., Park, I., Lee, E., & Park, S. (2007). The Effect of Media and Appearance Concern on Appearance Management of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4), 624-632.
- [31] Levinson, D. (1978). *The season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 [32] Lowenfeld, B. (1981). Effects of blindness on the cognitive functions of children. In B. Lowenfeld(Ed), *Berthold Lowenfeld on blindness and blind people*. New York: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 [33] Jee, C. (1997).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Self-esteem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ommunity Development Soonchunhyang University.
- [34] Han, S. (2006).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ppearanc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n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Master's dissert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 [35] Yang, K. (1993).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Perceived Physical Attachment: Focusing on Adolescence.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36] Mendelson, B. & White, D. (1993). *Manual for the body-esteem scale for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Concordia University, Montreal, Quebec.
- [37] Lee, J. (2005). Sociocultural influences on body-appearance satisfaction of 4th, 6th and 8th grade children.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 [38] Kim, M. (1984). A study on the abolition of school uniforms and personal appearance satisfaction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girl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ang Myoung Women's University.
- [39] Kim, Y. (2014).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urchasing hair clinic service and building up its trust according to growing interest in appearance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 [40] Kim, J. (2010). The Correlation of the Body Image Satisfaction and the Appearance Caring Behavior of Mid-Aged Women Regarding the Propensity to narcissism.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bu.
- [41] Kim, H. (2011). The effects of the appearance satisfaction improvement counseling program on elementary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 [42] Lee, Y. (2011). Factors Influenci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Middle-aged Wome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bu.
- [43] Im, J. (2011). The Concern of Women in Old Age for their Appearance and the Effects of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Beauty Therapy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 [44] Jeong, E., & Kim, J. (2007). A Study on Cosmetics Purchasing Behavior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by their Interest in Appearance. *J. Kor. Soc. Cosm.*, 13(1), 353-365.
- [45] Lee, Y. (2009). A Study on Gender-Role Identity Types, Appearanc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among the Young People.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illa University.
- [46] Lee, J. (2018). A Study of Beauty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20s Female's Profession -Focused on Hair-.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Arts Chung-Ang University.
- [47] Kim, Y., & Hwang, S. (2008). Effects of Socio-Cultural Pressur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the Behavior of Women for Appearanc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10), 112-122.
- [48] Son, E. (2007). Th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and the Attitude of Body Image on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1), 63-81.
- [49] Ha, J.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 [50] Chyung, Y.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Body Comparis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among Adolescent Girl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2), 27-42.

- [51] Hong, Y. (2005). A Study on Mental-health Level in Women with Disabilities -Centering on the Individuals with Orthopedic Impairments in Gyeongbuk Area-.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 [52] Park, H. (2013). The Influences of Self-Assertiven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53] Lee, K. (2007). A Research of Desire Self-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Women according to Degree of Appearance Concern.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Seo kyeong University.
- [54] Shin, E. (2016). The Relationship among Cosmetic Motivation, Young Face Image Make-up,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ubjective Happiness of Adult Women.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Culture · Public Administration and Welfare Hannam University.